

‘홈런=승리’... KIA, 넘겨야 이긴다



영양가 만점 홈런이 ‘호랑이 군단’의 반등세에 불을 지폈다. KIA 타이거즈는 26일까지 19경기를 소화하는 동안 8개 홈런을 기록하는 데 그쳤다. 한화 이글스와 함께 가장 적은 홈런을 만들어 냈지만 양보다는 질로 승부하는 모양새다.

KIA는 홈런을 기록한 7경기에서 6승 1패의 전적을 올렸다. 2일 변우혁이 새 유니폼 차림으로 맞은 첫 타석에서부터 홈런으로 화끈한 신고식을 했다. 변우혁은 SSG 선발 백카터를 상대로 새 팀에서의 첫 안타를 홈런으로 장식했다. 변우혁의 홈런으로 선취점을 만든 KIA는 9-5, 시즌 첫승을 신고했다.

8일 두산전에서는 소크라테스와 최형우가 나란히 마수걸이 포를 날리면서 분위기 싸움을 했다. 소크라테스가 1회 첫 타석에서 최원준을 상대로 투런포를 날렸고, 5회에는 최형우가 역시 최원준과의 승부에서 2점 홈런을 장식하고 그라운드를 돌았다.

이날 9회초 마무리 정해영이 김재환에게 투런포를 내주는 했지만 경기는 KIA의 7-6승리로 끝났다.

4월 21일 삼성전에서 나온 홈런은 경기를 마무리하는 역전 끝내기 스리런이었다. 2-4로 뒤진 9회말 최형우가 무사 1·2루에서 이승현의 직구를 좌측 담장 밖으로 보내면서 순식간에 승부를 뒤집고 5-4 승리로 경기를 끝냈다.

22일 삼성전에서는 변우혁이 파워를 과시했다. 변우혁은 1회 2사 만루에서 맞은 첫 타석에서 원태인을 상대로 생애 첫 그랜드 슬램을 장식했다. 초반 기싸움에서 우위를 점한 KIA는 6-2 승리를 거두고 시즌 첫 연승에 성공했다.

23일 KIA의 첫 스윙이 완성된 순간에도 만루를 걷는 솔로포가 기록됐다. 삼성이 7회초 2점을 추격하면서 4-3으로 좁혀진

홈런 나온 7경기서 6승 1패 전적 팀 홈런은 적지만 영양가는 높아

7회말, 최형우가 중앙 담장 넘어가는 비거리 130m 대형 홈런을 날리면서 다시 분위기를 KIA로 끌고 왔다.

이 경기 역시 5-3, KIA의 승리로 끝났다. 26일에는 ‘9번 타자’가 일을 냈다. KIA는 전날 NC 에이스 에릭 페디의 완벽투에 막혀 4안타 빈타 속 0-6 영봉패를 당했다. 하지만 2회부터 시원한 홈런포가 가동됐다. 주효상의 적시타로 1-0으로 앞선 2회 1사 1·2루에서 김규성이 NC 송명기의 포크볼을 우측 담장 밖으로 날기면서 한 번에 3타점을 쓸어 담았다. 하위 타순에서 나온 홈런을 앞세운 KIA는 8이닝 무실점 호투를 선보인 메디나의 활약을 더해 6-0 영봉승으로 전날 패배를 고스란히 갚아줬다. 홈런이 나오기도 유일하게 쪼들 경기에서도 홈런 순간은 극적이었다.

11일 한화와의 홈경기. 이날 0-2로 뒤지고 있던 6회 확대인이 2사 1·3루에서 역전스리런을 날렸다. 분위기를 뒤집는 한방이었지만 경기는 연장 10회 4-5패로 끝났다.

9번 타자의 힘을 보여준 김규성은 “내가 홈런 친 것보다 팀 이긴 게 더 기분이 좋다. 초반부터 집중하려고 했는데 기회가 왔다. 카운트가 불리할 때 문에 컨택을 하면서 출루를 목표로 했는데 운 좋게 맞았다. 처음에는 홈런인 줄 몰랐다”며 “최근에 타격할 때 포인트가 자주 뒤에서 맞았다. 그래서 파울도 많이 나오고, 빗맞는 게 많았다. 포인트가 앞에서 제대로 맞아서 홈런이 됐다. 사실 나도 기대를 안 하던 홈런인데 하위 타순에서 홈런이 나오면 상대 입장에서는 더 분위기가 그럴 것 같다”고 웃었다.



KIA가 결정적인 홈런으로 분위기를 바꾸며 반등에 성공했다. 지난 26일 NC와의 경기에서 김규성이 송명기를 상대로 스리런을 날리고 있는 모습. <KIA 타이거즈 제공>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EPL) 맨체스터 시티 엘링 홀란이 26일 영국 맨체스터의 에테하드 스타디움에서 열린 EPL 33라운드 경기에서 팀 네 번째 골을 터뜨린 뒤 기뻐하고 있다. /연합뉴스

홀란 33호골... EPL 우승 경쟁 ‘혼란’

맨시티, 아스널에 4-1 대승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 2위 맨체스터 시티(맨시티)가 케빈 데브라위너와 엘링 홀란의 ‘쌍끌이 활약’을 앞세워 선두 아스널을 완파하고 역전 우승 가능성을 키웠다.

맨시티는 27일(한국시간) 영국 맨체스터의 에티하드 스타디움에서 열린 아스널과 2022-2023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33라운드 홈 경기에서 4-1 대승을 거뒀다.

“중원 사령관” 데브라위너가 2골 1도움을 기록하고, ‘괴물 공격수’ 홀란이 1골 2도움으로 힘을 보태면서 아스널을 상대로 3골차 압승을 달성했다.

더불어 EPL 무대에서 아스널을 상대로 12연승도 이어갔다. 12연승 동안 맨시티는 33골을 터트렸고, 실점은 단 5골이었다.

이날 승리로 7연승과 함께 최근 10경기 무패(8승 2무)를 이어간 맨시티는 승점 73을 쌓아 최근 4경기(3무 1패) 연속 승리를 따내지 못한 아스널(승점 75)을 승점 2차로 압박했다.

특히 맨시티는 아스널보다 2경기 더 덜 치른 상태에서 역전 우승의 희망을 더욱 부풀렸다.

맨시티는 전반 7분 만에 데브라위너와 홀란의 합작 골로 리드를 잡았다. 홀란의 패스를 받은 데브라위너는 상대 진영 중원에서 폭풍 드리블로 수비수 3명을 따돌린 뒤 페널티아크 오른쪽에서 강력한 오른발 슈트로 아스널 골대 오른쪽 구석에 공을 꽂았다.

선제골을 책임진 데브라위너는 전반 추가시간 멋진 프리킥으로 도움까지 기록했다.

맨시티는 데브라위너가 오른쪽 중원에서 차출된 프리킥을 존 스톤스나 헤더로 연결해 전반을 2-0으로 마쳤다.

후반 9분 만에 데브라위너가 추가 골을 터트렸고, 홀란이 도우미가 됐다.

홀란은 후반 막판 묶었던 머리를 풀어헤치고 치명적인 금발 머리로 그라운드를 휘저으며 자신의 정규리그 33호골을 꽂으며 포효했다. 득점 2위 해리 케인(토트넘·24골)과의 격차는 9골로 벌었다.

이번 득점으로 홀란은 무함마드 살라흐(리버풀)를 제치고 ‘EPL 38경기 체제 단일 시즌 최다골’ 기록의 주인공이 됐다. 홀란은 이번 시즌 58분마다 득점이나 도움을 기록한 셈이다.

광주FC 울산 원정... “화끈한 축구로 대어 사냥”



두 경기 연속 골 침묵을 이어간 광주FC가 초심으로 울산 원정에 나선다.

광주는 30일 오후 7시 울산문수축구경기장에서 울산현대를 상대로 K리그1 2023 10라운드 원정 경기를 펼친다.

광주는 지난 26일 제주유나이티드와의 홈경기에서 0-1로 지면서 FA컵을 포함해 5경기 연속 홈 무패(4승 1무) 행진을 마감했다.

앞선 23일 강원FC와의 홈경기에서는 0-0 무승부를 기록하는 등 두 경기 연속 광주의 골이 나오지 않았다. 침묵의 두 경기에서 광주의 공세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강원전에서 10개의 슈팅(유효슈팅 5개), 제주전에서는 슈팅 16개(유효슈팅 6개)를 날리면서 맹공을 펼쳤다. 하지만 두 경기 연속 상대 골키퍼의 호수비 열전이 펼쳐졌고, 세밀함이 떨어지면서 득점에 실패했다.

제주전이 끝나고 난 뒤 광주 이정호 감독은 “선수들이 골을 넣기 위해서 끝까지 최선을 다했다.

골이 없었다는 게 선수들에게 많이 힘들 것 같다. 잘했다고 말해주고 싶다. 앞으로도 이렇게 한다면 경기하면서 많은 승리를 가져올 것이라고 생각한다. 많은 팬이 찾아오셨는데 두 경기 연속 골이 안 나왔다. 내가 부족해서 그런 것이다. 선수들은 사력을 다했다. 그런 점을 좋게 봐주면 좋겠다”고 언급했다.

득점에 대한 고민을 남긴 광주는 상대 역습에도 조심해야 한다. 광주는 앞선 두 경기에서 두 팀의 수비에 고전했다. 광주답게 ‘무조건 공격’에 나섰지만 문을 잠근 채 실수를 기다리는 상대 전술에 고전했다.

제주 남기일 감독도 “인내하면 후반에 기회가 있다고 생각했다. 팀을 위해 선수들이 인내했다”고 승리 소감을 밝히기도 했다.

팬들을 위한 화끈한 축구를 지향하는 이정호 감독에게 고민은 생겼지만 지난 제주전을 통해 희망도 됐다.

올림픽 대표팀 자축과 부상 여파로 쉬었던 임지성이 복귀전에 나서 중흥무진 그라운드를 누볐다. 이정호 감독은 “본인이 확실히 목표 의식이 생

긴 것 같다. 팀 성격에도 긍정적이라고 생각한다”고 좋은 평가를 했다.

패조의 컨디션으로 돌아온 임지성과 함께 이희균과 정호연은 공격진과 중원에서 왕성한 활동량으로 경기 운영에 힘을 불어 넣었다. 교체 투입된 허율도 날카로운 슈팅과 연계플레이를 보여줬다.

‘원발의 달인’ 아사시는 시원한 드리블과 크로스, 2개의 유효슈팅도 남겼다. 이민기와 두현석의 오버래핑, 티모-아론 등 수비진의 세트피스 능력까지 선수들의 컨디션은 좋다.

광주가 이번에 만나는 상대는 리그를 대표하는 강팀이자 ‘디펜딩 챔피언’ 울산이다.

올 시즌에도 울산은 이정호를 비롯해 주만규, 바코, 루빅슨, 엄원상, 김영권, 설영우, 조현우 등 화려한 스쿼드로 7승 1무 1패(승점 22점)를 기록, 단독 선두를 달리고 있다.

객관적인 전력에서는 울산의 우위지만 공은 등글다. 매 경기 강한 압박과 끈질긴 수비로 강팀에게 물러서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광주가 골침묵을 깨고 대어 사냥에 성공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강인, 라리가 최초 ‘이달의 선수’ 후보

그리에즈만 등과 경쟁

최근 물오른 기량을 뽐내는 한국 축구의 차세대 간판 이강인(마요르카)이 스페인 프로축구 프리메라리가(라리가) ‘이달의 선수’ 후보에 올랐다.

라리가는 27일(한국시간) 인스타그램을 통해 이강인을 포함한 7명을 ‘4월의 선수’ 후보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양투안 그리에즈만(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이냐키 윌리엄스(빌바오), 마르코 아센시오(레알 마드리드), 로날도 아라우호(FC바르셀로나), 유시프 누사이리(세비아), 살림 알랄라흐(바이올릿)가 이강인과 경쟁한다.

이강인이 이들을 누르면 한국 선수 최초로 라리가에서 이달의 선수로 우뚝 서는 영예를 안는다.

지난 24일 헤타페전에서 한국 선수로는 처음이자 개인 통산 최초로 라리가에서 멀티 골을 폭발한 이강인은 이 경기 수훈 선수는 물론, 30라운드 베스트 11로 선정됐다.

29라운드 셀타 비고전에는 마요르카 선수로는 14년 만에 9번의 드리블 돌파에 성공하며 주목과 찬사를 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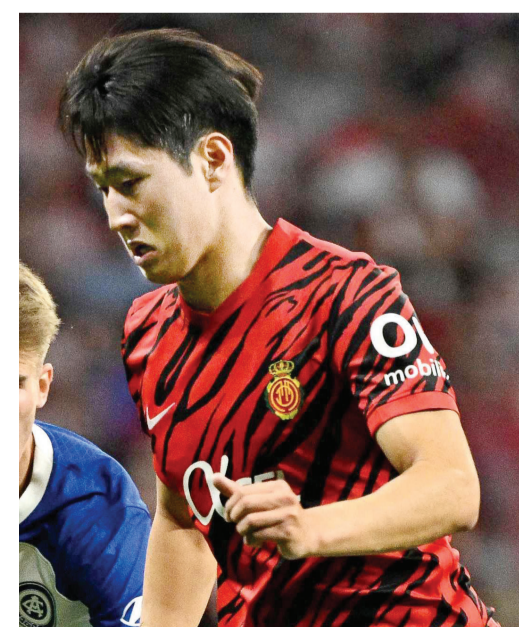
이런 활약을 높게 평가한 축구 전문 통계 사이트 후스코어닷컴이 지난 19일 유럽 5대 리그(잉글랜드, 독일, 스페인, 이탈리아, 프랑스) 주간 베스트 11에 이강인을 올리는 등 연일 상종가를 치고 있다.

4월 마요르카가 치른 4경기에서 2골을 기록한 이강인은 이 매체로부터 경기 당 평균 7.7의 높은 평점을 받았다.

4월 들어 첫 경기인 레알 바이올릿전에 난타전 끝에 3-3으로 무승부를 거둔 마요르카는 두 번째 경기인 셀타 비고전에서 이강인의 맹활약 덕에 2개월 만의 승리(1-0 승)를 따냈다.

이후 헤타페전(3-1)까지 연승을 쟁긴 마요르카는 16위로 마친 지난 시즌의 승점(39)을 넘어 승점 40의 고지에 올랐다.

27일 열린 31라운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전에



이강인

서 1-3으로 패한 마요르카는 현재 11위(11승 7무 13패)에 올라 있다.

이강인은 올 시즌 리그에서 5골 4도움을 기록 중이다.